

<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>

<선생님 코치> : 새벽설교를 할 때는 항상 앞부분에 ‘주일말씀 주제’를 인식 시켜주고, 잠언을 전해줘야 된다.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 ‘주제’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.

- <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해주는 잠언>은
‘한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잠언’입니다.

1. <그리스도>는 ‘하나님’과 절대 일체 되어 붙고, <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>은 ‘주’께 일체 되어 붙어야, 휴거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일어난다. 본인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야, 성경에 말씀한 대로 끌려 올라감을 받는다.
2. <주가 잡아당겨 주는 것>은 ‘본인이 행하라고 돕는 것’이다. 잡아당겨 줘도 행하지 않으면, 그 자리에 또 주저앉게 된다. <주>가 잡아당겨 주고 도울 때 <본인>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해야, ‘그 단계의 일’을 하고 ‘또 다른 차원’으로 오르게 된다.
3. <절대적>으로 ‘알고’, <절대적>으로 ‘행하기’다.
4. <건물>을 지을 때도, <어떤 작품>을 만들 때도 절대로 ‘목적을 완성할 때’까지 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‘미완성 작품’으로 끝나게 된다. <신앙의 삶>도 그러하다.

5. 누가 시키지 않아도, <자기>가 좋아서 ‘자기를 온전히 만드는 삶’을 스스로 살아야 된다.
6. 깨달을수록, <자기>를 ‘더 온전히’ 만들게 된다.
7. <깨달은 자>는 범사에 계속해서 ‘자기’를 만든다.
8. 동상을 뜯 때 <모형의 틀>이 세밀해야, ‘형상’이 세밀하게 나온다. 이와 같이 <육신>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, <영>도 <혼>도 완벽하게 만들어진다.
9. <동상>을 뜨는 ‘비유’가 합당하니, 성령님이 이를 통해 깨우쳐 주셨다. 신앙뿐만 아니라 만사가 동일한 이치다. 무엇이든지 그럭저럭하면 그럭저럭 되고, 완벽하게 하면 완벽하게 된다.
10. <완벽>해야 ‘미(美)’도 있고, ‘가치’도 있다.
11. <한 나무>를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대고, 잘라야 될 가지 ‘하나’를 안 자르고 그냥 놓고 보았다. 그랬더니, ‘그 가지 하나’로 인해 ‘전체의 작품’이 완벽해지지 않음을 깨달았다. 그래서 교훈적으로 일부러 자르지 않고 남겨 놓았다. 누가 보아도, ‘그 한 가지’ 때문에 ‘흠’을 잡게 된다.
12. <자를 것>을 ‘100%’ 잘라야, ‘완전한 작품’이 된다. ‘자기모순 100% 자르기’다.

13. <뇌>는 ‘하고자 하는 대로’, ‘노력하는 대로’ 생각나게 창조해 놓으셨다. 내가하고자 할 때, 잠언 하나라도 더 받고자 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생각나게 해 주셨다.

14. <뇌>는 만드는 대로, 생각하는 대로 ‘무한대’ 다.

15. 새벽 1시부터 3시 반까지 ‘기도’ 하고, 3시 반부터 6시까지 ‘말씀’ 을 받고, 마지막으로 ‘잠언 10개’ 를 써 놓고, 이제 는 더 이상 쓸 잠언이 없다고 생각했다.

그런데 하나님이 더 있다고 하셔서 계속 기도해 보니, 잠언이 ‘수백만 개’ 도 더 있음을 영계에서 발견하고 나왔다. 바로 ‘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잠언들’ 이었다.

<내게 있는 잠언>은 다했어도 <하나님께 있는 잠언>은 ‘무한대’ 이니, 더 있다고 하신 것이다.

16.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. ‘무한대’ 가 남아있다.

17. 어떤 사람이 자기가 ‘한 장소의 도토리’ 를 다 주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,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가서 도토리를 두 말이나 더 주워왔다. 알고 보니, ‘나중에 익은 도토리’ 가 늦게 떨어져서 더 주워온 것이었다. 앞사람에게 말하니, 그때 자기는 100% 주워왔다고 했다. <땅에 있는 것>만 생각하고, <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>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.

18. <자기 주관권>만 생각하지 말고, <하나님의 주관권>도 생각하

면서 행해라. ‘무한대’가 남아있다.

19. <월명동 자연성전>도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, 그 후로 ‘하나님이 주신 나무들’을 더 심게 됐다.

20. <산이나 바위 절경에 있는 나무들>을 다 손질했다고 생각했는데,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라고 하셔서 다시 ‘가지치기’를 완벽하게 했다. 잔가지도 잘라주고, 크고 굵은 가지도 과감히 잘라서 ‘본래 나무의 수형’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 놓았다. 올해 표어같이 새롭게 했다.

이와 같이 <자기>도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. ‘만들 것’이 무한대로 남아있고, ‘차원’을 높이면 끝이 없다.

21. <자기 영>도 ‘끝없이 변화’된다.

<부활>도

‘더 좋은 부활’, ‘보다 더 좋은 부활’로 한없이 이루어진다.

<자기 생활>도 ‘더 좋은 삶’이 무한히 있다. 깨닫고 행하여라.

22. <기도>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‘더 기도할 것’이 없어서 끝났는데, 더 기도하니 ‘또 다른 차원의 깊은 기도’를 계속하게 됐다.

얼마나 더 기도하게 됐을까? 1년, 2년, 10년, 30년, 일생 동

안 계속 기도하게 됐다. 수십 년 후에 오니, <지금의 기도>는 ‘어렸을 때의 기도’와 비교할 수 없이 심정 깊고, 차원 높았다.

23. <말씀>도 이전 말씀에서 계속 차원을 높이니, ‘끝’이 없다. 우리가 <하나님>과 일체 되었을 때, ‘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’로 가게 되는 것이다.

24. (하나님) <자기>는 끝났어도,
 <삼위와 주와 함께할 것>이 ‘무한대’로 남아있다.

25. <만물>도 <사람>도 연구하고 만들면 ‘더 좋게’ 만들어지고,
 ‘보다 더 좋게’ 만들어져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해진다.

26. <집>도 <전자제품>도 <생활용품>도 ‘더 이상 만들 수 없는 단계’까지 만들어 놓고 산다. 그래도 또 연구하면 ‘더 좋은 것’이 새롭게 만들어진다. 이와 같이 <자기 삶>도 ‘더 이상적인 삶’이 얼마든지 있다.

27. <구약인들>은 ‘구약 주관권’이 끝이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로 ‘메시아 예수님’을 보내서 2000년 동안 새로운 역사를 펴 오셨다. <신약인들> 역시 ‘신약 주관권’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더 새롭고 이상적인 ‘성약 천년 역사’가 시작됐다.

28. <사람이 따지는 식>으로 계산하지 말고, <하나님이 따지는 식>

으로 계산하고 행해야 된다.

29. <하나님과 성령님>을 따라 행해야, ‘무한한 세계’로 계속 차원 높여 올라가게 된다.

30. <말씀을 받는 자>는 계속 차원을 높여서 받아 내고, <말씀을 전하는 자>는 계속 연구하면서 차원을 높여서 전해야 된다.